

**애니메이션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에서 나타난
초월적 환상 요소 분석
-질베르 뒤랑의 상상계 구조 중심으로-**
**Analysis of Transcendental Fantasy Elements
Appeared in Animation <The Place Promised in Our Early Days>
-Based on Gilbert Durand's the Imaginary Structure-**

임운주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Woon-Joo Lim(redprism@hanmail.net)

요약

이 연구는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초월적 환상' 요소에 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에서는 현실과 다른 공간이 등장하는데 이 공간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환상 요소는 왜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질베르 뒤랑은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 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에서 제시한 상상계의 세 구조인 분열 구조, 신비구조, 종합 구조와 상상력의 공간 이미지 특성을 시각성, 깊이, 편재성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애니메이션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에서는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나타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초월적 환상 요소는 어떠한 이미지를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부여한다. 그것은 등장인물의 감성을 통해 바라보여질 때 환상 요소가 작동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애니메이션에서 환상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시도하였다.

■ 중심어 : | 상상력 | 공간 | 이미지 |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interpretation of the elements of transcendental fantasy appeared in animation. It i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fferent spaces from the reality appeared in animation created out of imagination. In regard to the reason why such aspects of fantasy elements appeared in the whole work appear, it presents the three structures including divisional, fantasy and comprehensive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of spatial images of imagination presented in Gilbert Durand's 『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 through visual nature, depth, and maldistribution.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elements in animation <The Place Promised in Our Early Day>. Transcendental fantasy elements give abstract concepts to certain images as it specifically describes them in reality. The fantasy elements operate when it is viewed through the sensibility of the characters. This study attempts to closely approach the issues on how fantasy elements operate in animation.

■ keyword : | Imagination | Space | Image |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애니메이션은 상상력의 세계이다. 상상력은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의 정신세계와 행동을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초월적 공간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초월적 공간이 나타나는 작품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몬스터 주식회사>, <코렐라인>, <파프리카>, <센과 치이로의 대모험>,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등등 끊임없이 시대를 관통해서 나타난다. 초월적 공간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공간 이미지에 대한 표현은 현실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게 한다.

질베르 뒤랑은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 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에서 '초월적 환상'을 상상계를 통해 공간 이미지를 말하고 있다. 상상계는 먼저 뒤랑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다. 그는 상상력을 시간·변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느끼는 불안의 극복에서 나타낸다. 이것은 운명에 대한 저항이며, 상상력의 기능을 선형적 형태라고 하였다[1]. 그러므로 우리의 상상력은 지극히 현실적 사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의 진보와 성숙하는 과정에서 사유의 흐름이 추상화되고 특수화 된 것이 바로 상상력이라고 한다. 상상력은 시각의 전개에 의해서 청각과 언어의 전개에 의해 형성된다, 이것들은 공간적 "거리를 두고"이해와 동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들을 형성된다. 그러므로 상상력의 공간, 즉 '초월적 환상'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존재를 일련의 공간 속에 고정시켜 놓은 것이다. 그 존재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과거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때, 시간을 중단시키기를 원하는 존재인 것이다. 수 없이 많은 벌집 구멍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속에 시간이 압축되어 들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간이 하는 역할이라고 뒤랑은 주장한다[2]. 그러므로 공간이 상상계의 전 도정에 나타나는 선형적 형태라는 것은 상상력의 범주가 상상계의 구조들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상계의 구조들은 공간에 정서적인 차원이

부여되면서 공간과 통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때 정서적인 차원이란 상승과 초월적 이분법, 도치와 내면의 깊이, 반복의 무한한 힘을 말한다. 이렇게 상상계의 세 구조들은 상상력을 표현하는 구조로 이해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초월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초월적 환상에 어떤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접근 방법

이 연구에서 분석할 작품은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이 2004년 공개한 그의 최초 장편 애니메이션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이다. 이 작품은 탁월한 그림 수준과 정교한 연출 음악과의 조화 등으로 호평을 받으며 59회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누르고 수상한 바 있다.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는 제목에서부터 미지의 공간에 대한 상상력에서 출발하여 작품 전면에 상상력이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는 공간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화된 상상력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주되고 있다. 이 공간은 작품 전체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욕망이자 세계와 개인의 관계를 초월적으로 만드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관객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당연히 그의 미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작품이다. 이에 초월적 환상 요소를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애니메이션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를 질베르 뒤랑의 상상계의 구조와 공간 이미지 특성을 분석하여 환상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초월적 환상

1. 상상계의 세 구조

뒤랑은 바슐라르의 분류체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인간 상상력의 소산인 이미지와 상정을 분류구조, 신비구조, 종합 구조라는 세 가지 틀 속에서 분류함으로써 상상계에 보편적이고 동일한 실재가 존재한다

고 보았다[3]. 그리고 이 구조 속에는 여러 형태의 콤플렉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분열 형태구조는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를, 신비 구조는 ‘호프만 콤플렉스’를 그리고 종합구조는 ‘노발리스 콤플렉스’를 내포하고 있다 [4].

1.1 분열형태(schizomorphe) 구조

뒤랑은 분열 형태 구조를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현실과의 접촉 상실”, “실용주의의 결핍”, “현실 기능의 상실”, “자폐증”이다. 둘째, “분리하는” 재현행동이다. “잘린, 분할된, 분리된, 둘로 나누어진, 파편화된, 이가 빠진, 잘게 찢긴, 굵아 먹은, 녹은” 등의 일반적인 자폐증적 태도가 재현된 논리이다. 셋째 병적 기하학주의는 대칭, 도면, 재현과 행동에서 가장 형식적인 논리의 우위성으로 표출된다. 공간적이게 된 현재를 위해 시간의 관념과 시간을 의미하는 언어 표현들이 사라지는 현상이다. 분열 형태적인 구조들은 항상 정상적인 재현들 속에서 나타난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현실적 기능들이 상실되어, 현실과 분리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과의 구별 및 대조법에 의한 사유를 만들어 낸다[1]. 이 구조는 영웅·선·전사의 괴물·악·어둠에 대한 싸움의 이미지들과 주제를 선호하는 영웅적 구조이며 시간의 변화와 죽음 앞에서 불안감을 나타낸다[5]. 그러므로 이 구조는 분열 행위와 흑백 논리에 따른 영웅적 구조이며 운명에 대한 저항이다.

1.2 신비 구조

분열 형태와는 상반되는 구조로서 동화(同化), 동일시, 결합 행위이다. 뒤랑은 신비 구조를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 ‘집착증’에 나타나는 고집, 그리고 끼워 넣기의 상징들과 구문에서 중복과 이중 부정이 보여주는 중복이 있다. 둘째, 집착성인데 모든 사물과 사물의 ‘좋은 면’을 인식하면서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때는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사고를 가지 없는 대조법의 체제에 종속시키고 나누고 자르는 것을 거부한다. 셋째, 두 번째 구조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물들의 내면이 채색되고 ‘구체적인 모습’, 생명력 있는 움직임, 존재들의 ‘경험’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 구조는 사물들

과 존재의 내면으로 내려가는 상상적 여정에서 드러난다. 넷째, 집중과 ‘축소 요약’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환상이 보여주는 가치들과 거대한 도치를 분명하게 보여준다[1]. 이 구조는 대상과 자신의 동화되는 것 결합되는 것을 뜻한다. 욕망하는 것을 거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욕망하게 되는 구조를 말하며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자신의 욕망의 이미지를 미화하고 그 대상을 얻기 위한 상상적 경험들을 상징하고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3 종합 구조

이 구조는 상이한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과정이다. 뒤랑은 종합 구조를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 ‘대립되는 것의 조화의 구조’이다. 종합적 상상력은 적응과 동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협력하도록 만드는 동적 에너지가 작용한다. 둘째, ‘변증법적 구조’로서 종합 구조는 ‘대립 내에서의 결합’이다. 대립되는 것들을 동시에 사고의 대상으로 삼아 하나로 종합하고 그 가운데에서 같은 관계로 맺어 주는 것이다. 뒤랑은 상징적 상상력을 인간 영혼 자체의 변증법적 활동이며 상징 자체에도 변증법적 성격이 내속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변증법은 이미지, 상징, 인간 영혼을 모두 ‘긴장’ 속에서 하나로 아울러 상징이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가 상징이 되는 것이다[6]. 셋째, 현재를 기반으로 한 미래와 상대성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역사적 구조이다. 시간의 관념에서 연대기가 갖는 숙명을 무화(無化)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사법(活寫法)을 사용한다. 넷째, 역사와 시간을 가속화시켜 그것을 완성하고 지배한다는 내밀한 욕구인 “이세 콤플렉스”가 생긴다. 여기서 역사적 구조는 여러 가지 스타일로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중 역사 속에 이상적 완료 시점을 정하는 혁명적 스타일이 진보주의적 구조를 마련하고 의식 내부에 “이세 콤플렉스”가 생기며, ‘미래의 활사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1]. 이 구조는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이며 상반되는 것들을 어떤 상징으로 하나로 묶어내는 결합하는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징이 시간이든 공간이든 항상 합의점을 찾아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상상력 공간 이미지 특성

공간이 상상계에서 나타나는 선형적 형태이다. 상상력의 구조들은 공간에 정서적인 차원이 부여되면서 공간과 통합되어 나타난 것이며 그 정서적인 차원이란 상승과 초월적 이분법, 도치와 내면의 깊이, 반복의 무한한 힘을 말한다. 상상계가 만들어 낸 저 세상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린 대신에 공간이라는 개념을 부여한 것이다.

2.1 시각성

인간에게는 자신이 받은 감각 전체와 지각의 흔적을 시각적인 주제로 바꾸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 “시각성”은 그것이 지닌 빛으로 모든 감각적인 자극과 개념을 밝혀준다. 본다는 것 보여준다는 것은 이미 시각적인 것과 근접해 있다. 사진기의 렌즈는 그 이름과는 달리 객관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의 시점을 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대상의 변형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각성이란 상상력의 선형적 형태에서 기본적인 요소이다. 시각은 기본적으로 거리의 기관이며 “시각성”은 본능적으로 지평선을 “무한 공간”으로 보는 것을 나타낸다[1].

2.2 깊이

모든 “생각된”공간에는 거리에 대한 통제가 작용한다. 시간을 축약한 것이고 자연적으로 그리고 한꺼번에 지각되는 거리는 하나의 “차원”이 된다. 그 차원에서 거리의 연속성은 차원들의 동시성이 존재한다. 깊이는 그것을 지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시간적으로 구분되며, 그 개념화를 위해서는 대수적으로 구분이 된다[1]. 세 개의 차원, 즉 수직과 수평 그리고 깊이는 이미지 내에서 전체적으로 주어진다. 공간이란 깊이와 머나먼 곳을 향한다.

2.3 편재성

상상력의 편재성에서 자연스레 나온 상상력의 다른 두 가지 기본적인 특성은 상상적 표현의 참여와 양가성이다. 양가성은 바슐라르가 주장한 “양가성(兩價性) 없

이는 몽상이 존재하지 않고 몽상 없이는 양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는 물을 통해 완화와 응집을 그리고 바람의 양가성을 통해 부드러움과 난폭함, 순수함과 망상, 파괴와 소생 등을 말한다[7]. 인간의 표현에는 “동시에 그리고 한꺼번에” 두 영역이 들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신화적인 것과 세속적인 의미화와 필연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상동성이나 균등함이 형식화된 편재성을 만들 뿐 아니라 아이덴티티를 낳은 동의어 반복에서 역설적이게도 온갖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동질성에 의해 형상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무한히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이미지로 “걸리버화”와 “거인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미지를 덧없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밖의 장소, 대상이 늙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 장소에서 보존시키는 기능이다. 동일시의 원칙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특성에 토대를 둔 순수 유클리드적 형태를 갖는데 변화의 그룹과 상동성의 그룹이다[1]. 편재성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자 모든 것이 공존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곳이면서 저곳인 동시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할 수 없는 시간, 즉 창세기 이전의 저 너머인 공간 혼돈의 세계를 나타낸다.

III. 초월적 환상 요소 작품 분석

1. 상상계의 세 구조

1.1 분열형태(schizomorphe) 구조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에서 나타난 분열 형태 구조는 “현실과의 접촉 상실”, “실용주의의 결핍”, “현실 기능의 상실”, “자폐증”으로 사와타리 사유리가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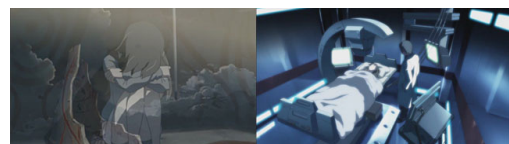


그림 1.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중에서

“그녀는 늘 뭔가를 잃어버리는 예감이 든다고 했다.” 라는 독백으로 시작된 이 작품 속에서 사와타리는 [그림 1]에서 나타나듯 현실과 격리되어 꿈속에 홀로 남겨져 있다. 자폐증적 태도의 재현으로 보이는 이 장면은 사와타리가 꾸는 꿈의 세계, 또 다른 차원인 평행세계는 시간의 관념과 시간을 의미들이 사라지는 현상이다. “분리하는” 재현행동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미군이 통치하고 있는 남쪽과 연합군이 통치하는 북쪽의 분단이라는 세계관을 뜻한다. 이 작품에서는 영토의 분단, 갈라진 연인이 나타난다. 이것은 “잘린, 분할된, 분리된, 둘로 나누어진, 파편화된, 이가 빠진, 잘게 찢긴, 값어 먹은, 녹은” 등의 의미를 상징한다. 분열 형태적인 구조들은 항상 정상적인 재현들 속에서 현존되어지는데 이것은 현실에서 알 수 없는 평행세계를 연구하는 자들로 인해 존재되어짐을 나타낸다. 타쿠야는 평행세계에 대한 연구원으로 분열 형태적 구조를 현실과 연결시키는 인물이다. 사와타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현실적 기능들의 상실된 인물이라면 타쿠야는 현실 속에서 분리된 사와타리를 현실 속에서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이것은 현실과의 구별 및 대조법에 의한 사유를 하는 역할을 한다.

1.2 신비 구조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신비 구조는 탑과 세 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분석 할 수 있다. 히로키와 타쿠야, 그리고 사와타리라는 인물은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다. 이 세 사람은 미지의 탑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뒤랑이 말하는 신비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중에서

[그림 2]에서 ‘베라실러’라 이름 지은 비행기와 히로키, 타쿠야, 사와타리가 등장한다. 그들은 항상 모여서 그 탑에 가기 위한 비행기를 비밀리에 제작하는 ‘집착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히로키와 타쿠야만의 비밀이었으나 어느 날 우연히 사와타리가 알게 되어 세 사람을 묶어 주는 ‘점착성’인 공간이다. 또 하나의 점착성은 탑이다. 이 탑은 작품 전체를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 세 인물들은 탑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저 멀리 있는 탑에 대한 환상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집착한다. 작품 속에서는 탑에 대한 사고를 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로지 그곳에 있을 무엇인가를 위해 서로 점착되어 진다. 그러므로 탑의 이미지는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 주인공들에게 움직임의 원동력이 된다. 이 구조는 탑으로 가기 위한 상상적 여정으로 드러나는 데 그것이 바로 [그림 2]의 ‘베라실러’이다. 이 비행기 ‘베라실러’는 신비구조의 네 번째인 ‘집착’과 ‘축소 요약’으로 볼 수 있다. ‘베라실러’는 세 인물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한다. ‘베라실러’를 만드는 공간은 현실과는 격리되어 있으면서도 세 인물들이 보여주는 가장 익숙한 환상이 보여주는 가치들, 즉 그들이 공유하는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 준다. 이것은 현실과 환상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도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1.3 종합 구조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에서 나타난 상이한 요소들의 결합은 세 주인공이 만드는 비행기와 탑에 대한 욕망을 이루려는 현실과의 타협이다. 종합 구조에서 나타나는 ‘대립되는 것의 조화의 구조’로는 [그림 3]의 미군 하청 공장 에이미 제작소에서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부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히로키와 타쿠야로 묘사되어진다. 자위대의 착탄을 흠쳤다고 말하는 공장 인부와 주웠다고 하는 히로키와 타쿠야, 하지만 그 둘은 흠쳤거나 주웠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 공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대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그림 3.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중에서

[그림 3]에서 등장하는 오카나베는 남북통일을 위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라실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돈과 부품을 주고, 히로키에게 사와타리의 편지를 전하는 역할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용하고 대립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그들은 다르지만 같은 길을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종합구조에서 말하는 적응과 동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협력하도록 만드는 동적 에너지가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타쿠야와 히로키는 사와타리가 사라지고 각자의 길을 가면서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된다. 타쿠야는 국가를 위해 히로키는 개인을 위해 서로 융화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사와타리를 동시에 사고의 대상으로 삼아 다시 맺어진다. 이것은 종합구조의 ‘대립 내에서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인물들이 가진 상징성을 드러낸다. 사와타리라는 인물과 탐의 관계가 그들에게는 약속의 상징이자 파괴되어야 하는 이미지의 상징인 것이다. 이 작품은 히로키와 타쿠야가 속해 있는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사와타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와 상대성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시간의 관념은 역사적 연대기가 갖는 숙명을 무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며, 탐과 사와타리의 관계는 역사와 시간을 가속화시키고 세계를 완성하고 지배하려는 내밀한 욕구로 등장한다. 탐의 파괴는 역사 속에 이상적 완료 시점을 정하는 혁명적 스타일이 진보주의적 구조 역할이자 초월적 환상의 파괴이다.

2. 상상력 공간 이미지 특성

상상력의 구조는 상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득히 멀리 존재하고 있는 탐에 등장인물들의 욕망과 정서적 차원이 부여되면서 탐이 존재하는 공간과 통합되어 나타난다. 탐이라는 존재는 히로키와 타쿠야 그리고 사와타리를 이어주는 공간이면서도 그들을 분리시키는

초월적 이분법이 나타난다. 또한 탐과 사와타리가 만들어 낸 평행차원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린 대신 공간이라는 개념을 상징하고 여기서 작품 전체를 유지하고 긴장하게 만든다.

2.1 시각성

[그림 4]에서 탐이라는 이미지는 히로키와 타쿠야에게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막연한 이상을 꿈꾸게 하는 상징이다.



그림 4.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중에서

탐의 ‘시각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시각적인 주제로 바꾸어 상징한다. 이것은 탐이 가진 신비적 구조로 모든 감각적인 자극과 개념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히로키가 바라보는 탐은 막연한 동경의 대상으로, 히로키와 타쿠야가 같이 바라보는 탐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목표로, 히로키와 타쿠야, 그리고 사와타리가 같이 바라보는 탐의 상징은 그들의 미래를 상징한다. 이 ‘탐’의 이미지는 어떠한 대사로 그것을 묘사하는 것보다 더 전달력이 강하다. 탐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들의 미래이다. “시각성”은 본능적으로 지평선을 “무한 공간”을 상징하는데 구름의 저편에 있는 지평선 너머의 장소는 무한 공간으로 그들의 알 수 없는 미래의 상징이자 약속의 장소로 대변된다.

2.2 깊이

시각성에서 나타나듯 공간은 거리, 즉 깊이를 가지고 있다. ‘탐’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주인공들이 생각하는 깊이, 거리감은 현실적인 깊이와 정신적인 깊이로 볼 수 있다. 현실적인 거리는 현실 세계에서 가는 거리를

나타내며, 정신적인 거리는 통제에 의해 갈 수 없는 이유인 국경이라는 요소에 근거한다. 즉, 거리에 대한 통제와 국경이라는 통제가 등장한다. 이것들이 같이 작동되면 실제 지각되어지는 깊이보다 더 먼 존재감으로 느껴지며, 이 공간의 깊이는 갈 수 없는 머나먼 깊이 저 너머라는 '차원'이 된다. 이 차원에서 거리의 연속성은 탐의 끝이 어디인지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한한 공간 속으로 이어져 있는 탐의 이미지를 전체보다는 부분만 보여줌으로써 연속되는 길이를 상징한다.

2.3 편재성



그림 5.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중에서

편재성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치우친 것, 누구나 갈 수 없는 공간, 즉 사와타리만이 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그림 5]로 나타난다. 이 장면은 탐과 사와타리만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유클리드 공간이다. 이 공간은 그녀에게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그녀에게는 '동시에 그리고 한꺼번에' 두 영역이 존재한다. 그것은 알 수 없는 현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밖의 장소, 대상이 늙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 장소에서 보존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와타리의 부드러움과 두려움, 순수함이 응집되어 있는 반면, 그녀의 파괴와 소생이 의미하는 탐은 상상력의 편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녀를 통해 탐에 대한 모호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초월적 환상을 극대화시킨다.

3. 분석에 대한 논의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에서 나타난 초월적 환상 요소를 상상계의 세 구조와 공간 이미지로 분석하고

자 하였다. 초월적 환상 요소는 어떠한 이미지를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추상적인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고 읽는 것은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통해 관객에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초월적 환상 요소는 현실과 환상을 어떻게 구분 하는가에 대한 것이기도 하며, 결국 이것은 현실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규명하는데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현실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것들의 접촉 불가,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분리하는 것, 다른 세계, 즉 환상 속에서만 등장하는 요인들이 초월적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작품의 제목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는 문체에서도 맞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며 그들의 환상으로 작용하는 무엇인가이다. 이것은 현실과 다른 공간이며 알 수 없는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나타난 '초월적 환상'의 요소는 구체적인 현실과 대립적인 현실의 상징으로 사와타리와 히로키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였다. 편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사와타리로서 선택된 자이면서 히로키에게는 거부 할 수 없는 운명이자 집착인 욕망으로 드러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클리드 공간인 탐의 세계는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이미지로 한 프레임 안에서 다 볼 수 없는 가려진 단편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었으며, 이 탐은 두 지역의 이데올로기와 갈 수 없는 분열된 공간의 상징이자 알 수 없는 미래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초월적 환상 공간을 히로키와 사와타리의 육체가 베라실러(비행기)를 통해 다시 현실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더 이상 초월적 공간도 환상도 아닌 현실이 되어 버린다. 여기서 초월적 환상 요소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분열과 상상적 여정인 약속, 그리고 사와타리만의 유클리드 공간의 부재와 시간의 현실화, 상상력의 공간인 탐에 도착함으로써 더 이상 바라만 보는 존재가 아닌 그 곳에 있는 것으로 초월적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IV. 결론

질베르 뒤랑이 제시한 상상계 구조와 상상력 공간 이미지 특성을 통해 애니메이션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

소>에서 '초월적 환상 요소'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다. 상상계의 세 구조 속에서 드러난 분석 결과는 사와타리라는 인물을 통해 현실과의 접촉 상실, 분리, 평행세계로 분열 형태가 나타났다. 신비구조는 '탑'이라는 중심점을 가지고 세 인물에게서 보이는 집착증과 집착성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을 집중, 응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합구조는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는데 현실과 이상사이의 관계적 설명에서 세 인물과 역사적 현실 즉 작품 내에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들과의 관계로 나타난다. 상상력 공간 이미지 특성 분석 결과는 '탑'이라는 거대한 이미지로 분석되어진다. 탑의 시각성은 관객이 등장인물들의 눈을 통해 보이는 이미지들로 표현된다. 히로키 혼자 바라보는 이미지, 타쿠야와 히로키가 바라보는 이미지 그리고 히로키와 타쿠야와 사와타리가 같이 바라봄으로 나타나고 다시 세 인물이 각각의 길로 갈라지면서 히로키가 바라보는 탑의 이미지를 통해 다시 결합되는 역할을 한다. '탑'의 깊이는 시각성에서 바라보는 공간적 깊이, 즉 지평선 너머의 무한한 공간, 끝이 보이지 않는 탑의 높이로 나타내어진다. 또한 통제를 통해서 공간의 깊이 외에 정신적 깊이를 존재하게 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편재성은 '탑'과 '사와타리'의 시간 밖의 장소, 변하지 않는 파괴와 소생이 존재하는 유클리드 공간으로 드러난다.

'초월적 환상'의 요소는 첫째, 구체적인 현실과 대립, 분열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클리드 공간이 존재한다. 둘째, 환상 요소를 통해 등장인물들에게 집착증적 욕망이 드러나야 한다. 셋째, 작품의 세계관 속에서 환상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통제가 있어야 한다. 넷째, 시각적으로 전체를 보여주지 않음으로 신비감을 추구하며 대상이 존재하는 깊이에 대해 현실보다 더 멀리 아득히 먼 존재로 나타낸다. 다섯째, 특정한 인물만 환상 공간에 머물 수 있는 편재성이 있다.

분석 결과 초월적 환상 요소는 어떠한 이미지를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부여한다. 그것은 등장인물의 감성을 통해 바라보여질 때 환상 요소가 작동되었다고 분석된다.

이 연구가 시도한 것은 초월적 환상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환

상 요소는 왜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가를 질베르 뒤랑이 제시한 상상계의 세 구조와 상상력 공간이미지를 통해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에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에서 환상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에 '초월적 환상 요소'가 많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인 경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질베르 뒤랑, 진형준역, *상상력의 인류학적 구조들*, 문학동네, 2007.
- [2] 가스통 바슐라르, 박광수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 [3] 질베르 뒤랑, 유평근역, *신화비평과 신화 분석*, 살림, 1998.
- [4] 송태현, *상상력의 위대한 모험가들*, 살림, 2005.
- [5] 박기현, *상상계의 구조로 본 예술-질베르 뒤랑의 분화 현상에 대한 구조적 접근*, 불어불문학연구 58집, p.502, 2004.
- [6] 질베르 뒤랑, 진형준역, *상징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90.
- [7] G. Bachelard, "*Le Matérialisme rationne*," Paris:PUF, 1980.

저 자 소 개

임 운 주(Woon-Joo Lim)

정희원



- 1991년 2월 : 덕성여자대학교 산업미술학과(미술학사)
- 2006년 8월 : 홍익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미술학석사)
- 2010년 3월 :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